



긴급진단 제주도 하수처리 정책 이대로 좋은가(상)

처리비용 도민 지갑에서...

4월부터 1일 10t 이하 하수배출 건축물에 부담금 부과 건축·개발 비용 이전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소요될 듯

제주자치도가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포화 문제 해결과 하수도 재정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0일 이후 도내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10t 이하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배출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과 그 외 하수처리구역만 공공하수도를 연결해 오수를 처리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7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해 오수를 처리하도록 했다. 단,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건축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건축행위는 줄어들지 않았고 소규모 난개발은 계속 이어졌다.

오히려 그동안 개인 오수처리시설

을 통해 자체 처리를 하던 제주시 동지역 이외 건축물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포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월 10일 이후 도내 하수처리 구역밖 1일 10t 이하 오수 배출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일 10t 이하 오수 배출 건축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물에 대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 시 건축주가 납부하고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납부 해야 한다.

올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t당 172만 1230원이고 하수처리구역외는 364만560원이다.

도내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

처리구역 밖에서까지 하수가 들어가 하수처리장 용량이 급격하게 포화됐다"며 "이제와서 그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여유가 있는 곳이 어디나.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시설 용량을 증설해 나가겠다며 이 문제를 피해나갔다"며 "결국 도민들(1일 10t 이하 오수배출 건물주)의 건축 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10t 이하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법 조항에 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하수(도두)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02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현재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현재 증액 예산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화장실 가는 女 몰래 따라간 30대 경찰, 현행법 체포... 같은 날 동일 범죄 벌여

제주에서 모르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오후 3시쯤 제주 시내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또 다른 여성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지난 1일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촬영 여부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토론회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계위, 에너지시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나누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금 운용·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강민성기자



초여름 만개한 수국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에 수국이 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초여름 추억을 쌓고 있다. 이상국기자

"쇼핑아울렛 결사반대"

서귀포상가연합회 집회

서귀포상가연합회는 7일 서귀포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자본과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을 위한 쇼핑아울렛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탐정제주개발(주)는 운영사로 (주)신세계사이먼을 선정, 오는 7월 말에 제주신화월드 내에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다"며 "지역상권 몰락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은 도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서귀포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실망스럽다"며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허가 위법성 문제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위법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계약금 부풀려 '슬쩍'

도청 운동부 감독 집유

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에게 계약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익을 가로채고 부상을 당해 전지훈련과 대회를 참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전지훈련비를 편취한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운동부 감독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청 소속 직장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3명의 신규 운동부 선수를 상대로 인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이 A씨가 보고한 계약금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에 선수 계약금이 6000만원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으로 부풀려 1000만원의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성기자

신고필증 위조 숙박업소 적발

자치경찰 "신중수법 사례 전담반 편성해 단속 강화"

제주에서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제주시 봉개동 소재 숙박업소를 지난 3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미신고 업장으로 추정되는 특정업소의 광고를 다수 발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당초 사업

자 신고 시 등록한 3개 객실이 아닌 7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업소 운영자는 변경신고 없이 단속 회피 목적으로 신고 필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기존 미신고숙박업 위반 사례에서 벗어난 신중 수법으로, 도내에서는 첫 적발 사례다.

자치경찰단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환경 내일이면 늦으리"
(주)대승
 대통령 표창수상 환경 경영시스템 14001 인증
 환경부장관 표창수상 미국 FDA Medical device
 한국 신지식인 선정 (중소기업청)

친환경 제품 생산 수출업
디톡스 풋패치(파스형)
 운동 전후, 피로, 통증완화, 혈액순환, 불면증 등
탈취제(식물성 인·축 무해)
 광범위 악취 싹, 동물농장, 축사, 돈사, 계사,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장, 하수, 모기식식처, 퇴비발효 적장, 동·어 가공 작업장 등
농업용(미래의 식물방어 생산물질)
 종합영양제, 응애-(알), 충체, 깍지, 수세회복
농업용 광어초독액 액비
농업용 활성탄(개스미 숲)

http://www.dsbio.net
 본사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3-1
 Tel : (064)757-3477, 782-6979
 (주)대승점점(문의사항) : 010-7542-3477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폭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중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판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플래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플래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수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조경 · 원예 · 화훼
인테리어 · 건축 · 토목용

화산석(송이)/붉은색, 흑색
 중국산 10kg 단위포장(중립 5~10mm, 대립 10~20mm)
백자갈, 회색자갈/오색자갈(어항, 인테리어용)
 중국산 10kg 단위포장(20~30mm, 30~50mm)/(5~10mm)

마사토
 국산 20kg 단위포장(소립 3~5mm, 중립 5~10mm)
바크(친환경 소나무 바크, 조경용 멀칭재, 원예화분용)
 국산 35L 단위포장(중립, 대립)
상토, 산아초, 휴가토, 녹소토, 적옥토, 파라이트

덕산조경원에자재(도, 소매)는
 도내 최저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P : 010 - 5568 - 2936 · T/F : 064)744 - 8828
 E-mail : duksanjo@naver.com · 주소 : 제주시 오영로 194(노명동)